

삼성전자 분쟁광물 정책

삼성전자는 인류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분쟁 지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삼성전자는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과 협력사의 동참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쟁 및 이슈 광물 지역의 환경과 인권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 등 10개국 분쟁지역에서 환경과 인권을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3TG, Tantalum/Tin/Tungsten/Gold)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소비자들에게 적법하고 윤리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제공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쟁광물 미사용(Conflict-Free)체제 구축을 위해 ‘OECD Due Diligence Guidance’를 기반으로 분쟁광물 공급망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인증 제련소와 거래를 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CFSP(Conflict Free Smelter Program)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와 거래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공급망 내에서 확인된 제련소 중 CFSP에 참여하지 않은 제련소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협력사 관리시스템(G-SRM)내에 별도의 분쟁광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대상으로는 분쟁광물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교육지원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제출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